

상처 치료에 효능을 나타내는 천연물 소재의 탐색

신혜진, 정향리*, 황단비, 김동욱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j890113@hanmail.net*)

피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매우 복잡한 기관이다. 피부는 표피, 진피 및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피에는 모세 혈관, 모관, 신경 세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피부는 외부의 이물질 침입에 대한 방어 효과를 가지고 있다. 피부에 상처가 발생시, 표피 뿐만 아니라 진피가 손상되게 된다. 심한 상처의 경우 모세 혈관, 모관, 신경 세포등이 손상되며 치료 과정에서 피부가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제약 회사에서 흉터가 남지 않는 피부 연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중 피부 상처 회복 (wound healing)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 소재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 자료를 검색하였다.